

# 우리 모두는 최고의 예술가다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대학 겸임교수  
문화학 박사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멋진 일이다. 문화의 시작이 그렇듯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연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호소통을 통해 오늘의 문명을 일궈왔다. 이러한 일련의 인간 행위가 예술이며 과학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 (Art)을 '테크네' (Techne)라고 정의했다. 테크네는 우주만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활용해 가시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영국 솔즈베리(Salisbury) 평원의 스톤헨지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프랑스의 에펠탑 그리고 도심의 마천루 등이 그 예이며 인간의 위대한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테크네'를 그저 '기술'로만 번역하고 있지만 좀 더 속의하면 '훌륭한 솜씨'를 뜻한다. '훌륭한 솜씨'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근간이며 삶의 방식이다.

결국,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예술적 행위가 되는 것이며,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 고흐(V. v. Gogh, 1853~1890)처럼 세기

(世紀) 최고의 예술가가 아닐지라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그렇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 의술로 병을 고치거나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구두를 수선하는 장인의 솜씨 또한 그렇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훌륭한 솜씨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예술'이라고 탄복하며 감탄한다. 그리하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술가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예술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기능(器能)이 아니며 자신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상에서 플로우(flow)되고 있다. 그 흐름은 파동(波動)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물질적이며 무한적 가치이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화되고 관점이 달라지면서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가고 있다. 문화를 생산하는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문화를 소비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행정에도 일정 영향을 미치면서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기본권 등이 꾸준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향유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개성의 표현이며 공동체를 구현하는 요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문화와 예술이 우리 생활에 점지(漸漬)

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도 풍성해짐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광주광역시 문화정책도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진정한 문화도시를 구축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다. 크고 화려한 건물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예술이 생활에 정착(粘着)될 수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규모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나 무대 예술은 마을 카페에서, 미술작품 전시와 감상은 마을 유희공간을 활용하고, 작은 서점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독서 토론이나 북콘서트를 하는 등 문화적 향유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생산되는 문화인프라라는 도시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며,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 낼 것이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약했던 '생활문화 아트병커 사업'도 이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본다.

다다른 모양과 빛깔의 꽃처럼 우리 광주도 타 지자체와 서로의 다름을 뽐내며 광주만의 꽃을 피워야 한다. 광주 시민 모두가 문화적 소양을 토대로 단순 기술자가 아닌 멋진 예술가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우리 모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광역시 시민이기 때문이다.

## 社說

### 한전, 농사용 전기료 합리적 방안 마련을

#### 전남도, 제도개선 건의

최근 전남지역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한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소형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은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례에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200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농업인 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서 비롯됐다. 한전의 이번 단속은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정하

지 않은 상태인 벼와 밭에서 수확한 배추와 콩은 보관 가능하고, 정미한 쌀과 김치와 두부와 메주 등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다.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는 13만 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농업인의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작물 저온보관창고는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농업 정책으로 추진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다. 농가들이 추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체험 농장사업이나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진행하려면 저온 창고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창고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간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처럼 이전 농사용 전기요금도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실정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한전은 전남도가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농사용 전기의 사용 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 일상된 '사이버 범죄' 철저히 대비해야

#### 전남경찰 불법 해킹조직 검거

개인정보 700만 건을 취득한 불법 해킹 조직이 경찰에 불발했다. 이들에게 해킹 범죄를 의뢰한 고객은 불법 도박사이트, 결혼정보업체, 성형병원, 주식투자 상담 사이트 등 이었다고 한다.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경쟁사를 골탕 먹일 목적이었는 이들의 안일한 범죄의식이 여처구니없다.

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해킹 조직 총책 A씨와 해커 B씨 등 7명이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며 385개 웹사이트에서 700여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불법 도박사이트 등 일부 고객은 경쟁 업체의 웹사이트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A씨 일당에게 의뢰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사이버 고충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118 상

담은 지난해 40만 597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분야별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절반을 차지하고 해킹·바이러스와 스팸이 각각 17.7%와 9.8%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2020년에 비해 15.1% 늘어난 20만 923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에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의료, 상수도, 통신 등 주요 분야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국가 기반시설과 주요 사회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킹을 저지르고 이를 사주한 관계자까지 엄벌해야 한다. 정부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살피며 고객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악성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장치는 미흡하다. 해킹, 맞춤형 스피어 피싱 이메일, 오픈소스를 통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까지 사이버 범죄가 일상화 된 지금, 사이버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레사카의 피레네 마을에서 열린 전통 카니발 '자쿠 자하락(낡은 포뎃자루)' 모습. 하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짐으로 가득한 자루에 들어가 해가 진 후 사람들을 때릴 때 사용하는 부풀린 동물의 방광이 달린 막대를 들고 밴드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온 마을을 행진한다.

피레네=AP/뉴시스

### 서석대

한국인은 정착성이 강한 민족이다. 농경 민족의 특성상 조상 대대로 한 지역에서 씨족공동체로 살았다. 한 마을에서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형태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도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귀소 본능이 강했다. 옛 벼슬아치는 늙거나 노부모가 있으면 고향이나 인근으로 벼슬을 옮겨갔다. 출세해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의 금의환향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다. 농경사회가 잉태한 뿌리깊은 정서다.

시체가 묻히지 않은 허총(虛塚)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이 발견됐다. 생사를 모르는 망인의 머리카락이나 치아, 아니면 그가 입었던 옷, 갓, 신발을 무덤 형태로 묻었다. 이마저도 없으면 읽었던 책, 쓴 시 등을 묻기도 했다. 흔백이라도 불러들여서 고향 땅에 묻으려 한 것이다. 허총의 풍습은 고향에 묻힌다는 강한 의식의 표현 아니면 따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근대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을 불러왔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는 이들에게 나고 자란 공동체의 자연과 환경, 문화, 먹거리의 소중한 추억이다. 늘 고향을 꿈꾼다. 죽어서라도 귀향을 생각하는 이유다. 이동성 문화

### 귀향과 기부

의 서양인과는 다른 점이다. 거문도에는 영국군 묘지가 있다. 영국 함대가 주둔하는 동안 3명의 병사가 죽었는데, 모두 그 섬 둔덕에 묻고 돌아갔다. 반드시 고향에 묻힌다는 우리의 의식은 다른 것 같다.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런 한국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제도다. 고향세 시행 50여일이 지났다. 각 지자체마다 홍보 열기가 뜨겁다. 유명 인사들과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액 납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번거로움도 지적한다. 답례품은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 회원 가입해 직접 선택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가. 해외 동포들의 참여와 지정 기부 시스템 요구도 잇따른다. 무엇보다 향우들의 마음을 사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 넓은 바다를 누비다 생의 끝자락에 태어난 민물도 돌아와 알을 낳는 연어. 회귀해 산란하는 연어처럼, 우리의 강한 귀소본능의 마중물은 고향 기부가 아닌가 싶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